

준공 한돌 맞은 대산정유공장

金 演 會

(대한석유협회 홍보과장)

極東精油 大山공장의 준공은 서해안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하나의 이벤트였다. 지난해 11월 13일 완공된 大山공장은 현재 모든 공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6만 B/D의 일반정제시설과 3만4천 B/D의 중질유수첨분해시설 모두 공칭능력 이상으로 가동되고

있다. 생산제품의 규격도 완벽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중질유수첨분해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유허분이 거의 없는 무공해 경질유이다.

일반정제시설에서 생산된 경질유는 별도의 탈황장치를 거친후 상품화되고 중질유분은 감압증류탑에 보내어져 감압중질경유와

감압잔사유(아스팔트)로 분류된다. 이때 생산된 감압중질경유는 중질유 수첨분해시설(Hydro Cracker)에서 LPG, 나프타, 등유, 경유등으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상당량의 수소가스는 수소제조시설로부터 받는다. 이 시설은 자체 내에서 수소와 유허분을 반응시켜 탈황시키는

▼준공식에서 국내석유류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게된 극동정유에 대한 대통령표창이 있었다.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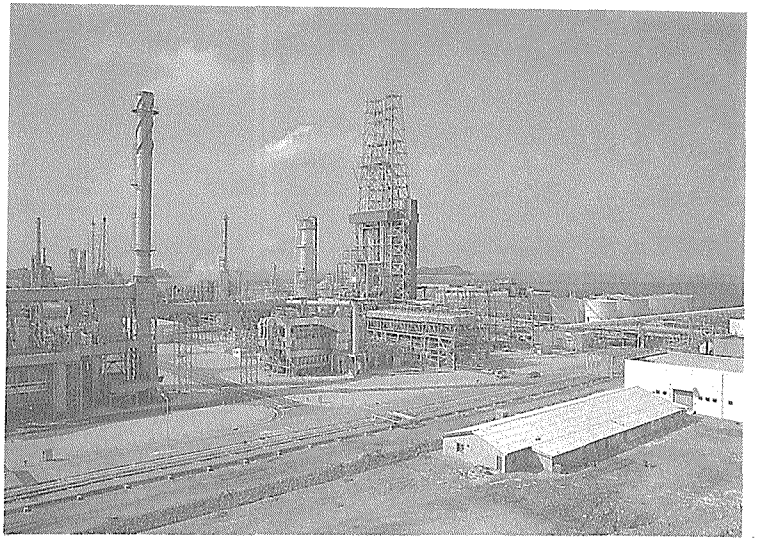
한편 감압잔사유는 아스팔트코크스화시설(Delayed Coker)에서 열분해되어 LPG, 나프타, 경유분으로 분류되고 부산물로 코크스가 생산된다.

이와 같이 극동정유 대신공장은 타정유공장과 달리 중질유분은 생산하지 않고 전량 경질유분만 생산하기 때문에 국내 경질유 수요패턴의 경질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중질유 간의 수급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석유류의 안정공급기반을 확충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대신공장은 최신시설과 새로운 특허공정을 채택하여 건설되었고 폐가스에 함유되어 있는 유황분까지 모두 회수하여 제품화하기 때문에 공장가동에 따른 대기오염은 다른 공장에 비하여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공장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기오염에 대한 피해의식과 거부감 때문에 가끔 공장에 찾아와 항의하기도 한다는 한조남 이사의 설명이었다.

대신공장은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건설되었기 때문에 금융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나다.

따라서 공장이 준공되어 정상가동에 들어선 현시점에서 불내·외자에 대한 금융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경영합리화 노력이 불가피하다. 극동의 전 임직원들은 공장건설사업을 훌륭히 완수한 긍지를 갖고 회사의 경영상태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겠다는



▲ 극동정유 대신공장 전경

공감대하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원가관리제도의 도입과 업무의 전산화, 목표관리제도 및 제안제도의 도입, 안전관리와 환경관리의 철저 이행, 연료절약과 품질관리, 사무용품 절약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업은 원유가 차지하는 원가부담률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할 수 있는 원가절약노력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극동정유의 경영상태는 국제원유가 중 경질원유와 중질원유의 가격차 혹은 국내 석유제품의 중·경질유분간의 가격차등 국내외의 상황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극동정유 대신공장의 준공으로 정유업계나 정부의 에너지 정책, 환경, 지역주민, 지역사회등에 미친 영향은 적지않다.

정유업계의 경우 최첨단 정제시

설의 필요성은 물론 경질유 수요패턴에 따른 첨단기술도입과 과감한 시설투자를 유도케 하였고 정부의 과도한 이익규제 정책완화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중질유 수요의 감소와 경질유 수요급증,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정제시설의 고도화(중질유분해 및 탈황)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현재와 같은 이익규제 속에서는 업계 스스로 투자재원을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특히 석유정책의 경우 수급안정과 저유가정책 실현에 최우선하고 있는 바 대신공장은 어떤 원유라도 모두 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유 도입선의 다변화가 쉽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경질원유보다 값싼 중질원유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대신공장은 '84년 당시의 엄격한 미국 환경오염규제기준을 적용하여 기본설계, 시공 및 건설이 진행됨으로써 완벽한 공해방지



▲ 사내 직업훈련생 입소식 광경

시설을 갖추었다. 즉 중질유분해시설 및 탈황시설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유황분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초저유황유제품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대기오염 저감효과를 가져오며,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 및 공해요인을 완벽하게 처리 또는 방지하여 '깨끗한 에너지(Clean Energy)' '깨끗한 환경(Clean Environment)'이라는 극동정유의 기업모토를 구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89년 6월 5

일의 제17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극동정유가 환경청장표창을 수상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의 경우 대산공장은 그동안 개발이 뒤져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서해안에 건설되어 종합석유화학단지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안시대의 개막을 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의 증대와 항만, 도로 등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촉진시키게 되었다. 실례로 사도로 건설된 진입로는 공장준공과 함께 서산군에 기부채납되어 지금은 공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공장건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명지삼거리와 화곡리간의 비포장도로를 정비, 포장하여 줌으로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공장종업원 650여명중 약 50%는 공장이 소재한 도민이며 도민중 약 50% 정도는 공장주변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처음에 기술생으로 들어와 일정한 교육을 끝내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어느 지역이든 큰 공장이 들어서면 생활여건과 경제활동이 활발하기 마련인 바 대산공장이 이미 들어섰고 그 주변에 건설중인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석유화학공장이 들어서 하나의 석유화학공단이 완성되면 서산일대의 모든 환경이 크게 변할 것이다.♣

□ 도서안내 □

1990년 石油年報

- 대한석유협회 기획부 -